

식민지 시기 대중소설에 반영된

서구문화의 수용 양상

—김말봉의 『찔레꽃』을 중심으로

강 옥 희*

요약

본 연구는 식민지 시기 폭발적인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대중소설 『찔레꽃』의 분석을 통해 자생적인 근대가 아닌 왜곡된 근대, 그러나 완숙한 식민지 자본주의의 메타모포시스적인 공간인 경성에서 당대의 서구문화가 작품 안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대중의 정서에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930년대 대표적인 대중소설인 김말봉의 『찔레꽃』은 그 이전의 작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변화한 경성의 새로운 문물과 새로운 상황의 전시를 통해 대중의 흥미를 이끌어냈다. 특히 작품 속에 형상화된 자본주의적 소비의 완성판인 백화점은 화려한 자본과 공간의 전시를 통해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백화점이라는 근대공간이 제공하는 자본주의적 소비욕망과 함께 서구문화를 받아들이고자 열망하는 독자의 바람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근대적 주거에 대한 대중의 욕망을 잘 보여주는 문화주택이라는 신식 공간을 통해 새로운 삶을 욕망하는 대중의 정서를 보여주었다.

『찔레꽃』이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작품 안에 다양한 서구적 삶의 양상이 드러나 있고, 그러한 모습이 현실에서 도피를 꿈꾸는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해외여행의 이국체험, 이국적인 생활방식과 서구적인 식생활, 파티문화, 승마, 핑퐁, 보트타기 같은 부르주아적인 취미, 할리우드와 거의 동시에 상영하고 있는 영화의 관람 등을 통해 다양한 서구적 생활의 파노라마를 보여주고 대중의 삶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또한 1930년대에 이르면 ‘돈이나 사랑이나’는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며 자

* 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연스럽게 돈에 대한 욕망과 일상적인 삶의 욕망을 표출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근대적 공간으로의 전환과 일상적인 삶의 변화가 가져온 메타모포시스(변화, 변형)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찰레꽃, 대중소설, 경성, 백화점, 문화주택, 서구생활, 메타모포시스(변화, 변형)

1. 머리말
2. 공간의 변화와 근대적 욕망의 투영
3. 서구적 생활의 파노라마와 근대적 취미의 향유
4. 자본주의적 삶의 일상화
5. 나가는 글

1. 머리말

1930년대 식민지 경성은 근대적 도시로 급격히 변모한다. 그 결과 30년대 중반 “최근의 경성은 한 말로 하면 자본주의의 도시인 경성으로 변하여 가는 것이다. 모든 봉건 유물은 쫓기고 자본주의의 제 요소가 변화스럽게 등장한다. 고아한 조선식 건물은 하나 둘씩 헐리고, 2,3층 4,5층 벽돌집 돌집이 서게 된다. 서울의 거리에는 날마다 건축하는 빛이요, 아스팔트 칸 길이 나날이 늘어가고 이 길 위에는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등이 현대 도시의 괴음을 지르며 지나간다.”¹⁾라고 묘사될 만큼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소비자본주의의 산실로 자리잡아가기 시작한다. 1930년대 경성은 식민지체제하의 암울함을 지니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서구문화가 소개되고 수용되었던 메타모포시스의 공간 즉 변화와 변형의

1) 유광렬, 『대경성의 점경1·2』, 『사해공론』, 1935. 10. 82-83면.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하의 기형적이고 왜곡된 근대이기는 했으나 대중이 등장했고, 완숙한 자본주의적인 면모를 갖추어 갔다. 또한 모뽀모꼴(모던 보이, 모던 걸)로 표방되는 서구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군상과 신식교육을 받은 인텔리가 등장했으며, 근대적인 지식과 서구적인 교양을 가진 근대적인 주체가 살았던 공간이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소설 속에서 공간의 변화는 등장인물의 인식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수반하며 그에 따라 다양한 삶의 변화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1930년대 많은 소설의 무대가 되었던 식민지 수도 경성은 식민지 근대화의 변화과정과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군상의 다양한 면모와 욕망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 시기 정치적인 외부 정세와 자본주의적 출판이 촉발한 다양한 대중소설은 식민지 말기의 대중을 위로하며 그들의 욕망을 보여주는 좋은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대중소설의 융성기였던 1930년대에 본격적인 통속작가를 천명하고 나선 김말봉은 본격문학작가들로부터는 비난과 혹평을 받았지만 대중에게는 큰 사랑을 받은 작가이다. 대중에게 김말봉이라는 작가를 각인시켰던 작품 『짚레꽃』은 1939년 3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다가 1939년 인문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짚레꽃』은 “연재가 계속되면서 조선일보의 발행부수를 종전의 배 가까이 신장시켜놓을 만큼 대중들의 폭발적인 인기”²⁾를 끌었고, “30년대의 열악한 출판 상황 속에서도 6판을 찍어냈을 정도로 많은 대중독자들을 확보했던 작품”³⁾이었다. 『짚레꽃』의 인기는 해방 후 덤핑출판사들이 마구 찍어내어 판을 거듭하면 서도 지속적으로 출판되어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특히, “당시 북간도에 있는 젊은이들 치고 『짚레꽃』을 읽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⁴⁾는 것을 보면 암울하고 지리멸렬한 현실 속에서 현실과 전혀

2) 편집실, 『꺼지지 않는 개혁의 불꽃 - '짚레꽃'의 작가 김말봉 장로』, 『새가정』, 새가정사, 1986. 9. 108면.

3) 강옥희, 『한국근대 대중소설연구』, 깊은샘, 1999. 243면.

상관이 없는, 오히려 그들의 삶과는 너무나 유리된 상층남녀의 애정이야기에 대중이 몰두했다는 것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당시 대중의 반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절레꽃』이 식민지 시기 대표적인 대중소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데는 남녀 간 애정이야기의 흥미로움과 함께, 암울한 현실을 잊을 수 있는 만화경 같은 경성의 모습과 그 작품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읽고 대리체험 하고자 한 독자들의 기대지평이 골고루 어우러졌기 때문이다.

그간 『절레꽃』은 1930년대의 대표적인 통속적 대중소설로 평가받았고, 작품의 서사구조나 의미, 작품의 수용과정 등 비교적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⁵⁾ 대중소설 연구 초창기 대부분 통속성의 관점에서 연구되던 『절레꽃』은 최근에 와서는 더 다층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부르주아 가정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욕망의 발현과 강화 과정을 가정소설의 독법으로 읽어내고 있는 오태영의 논의, 작중에 등장

4) 양평, 『베스트셀러이야기』, 우석, 1985. 172면.

5) 그간 이루어진 『절레꽃』에 관한 학위논문과 일반 연구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강옥희, 『1930년대 후반 대중소설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권미라, 『김말봉 통속소설 연구 : ‘밀림’, ‘절레꽃’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반건우, 『1930년대 대중 연애소설의 서사구조 연구 : 김말봉의 『절레꽃』과 박계주의 『순애보』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유진아, 『1930년대 후기 장편소설에 나타난 통속성의 양상 : 『절레꽃』과 『탁류』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이경춘, 『1930년대 대중소설 연구 : 김말봉의 『절레꽃』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이정옥, 『대중소설의 시학적 연구 : 1930년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정희진, 『김말봉의 『절레꽃』 연구 : 서사기법과 독자 흥미 유발 요소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김미영, 『김말봉의 《밀림》과 《절레꽃》 독자수용과정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고찰』, 『어문학』107, 한국어문학회, 2010., 김한식, 『김말봉의 『절레꽃』과 ‘본격통속’의 구조』, 『한국학연구』12, 2000., 박선희, 『『절레꽃』에 나타난 스포츠와 연애』, 『우리말글』59, 우리말글학회, 2013. 서영채, 『1930년대 통속소설의 존재방식과 그 의미 : 김말봉의 『절레꽃』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4권 1호, 1993., 손종업, 『『절레꽃』에 나타난 식민지도시 경성의 공간 표상체계』, 『한국근대문학연구』16, 한국근대문학회, 2007., 오혜진, 『근대 대중소설에 나타난 장르믹스의 변모양상 - 영상섭의 『사랑과 죄』와 김말봉의 『절레꽃』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27, 2009., 장두식, 『김말봉의 『절레꽃』 연구』, 『한국문학논집』18,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2.

하는 스포츠를 통해 연애문법을 찾아보려는 박선희의 논의, 작품의 주요 배경인 경성의 공간을 서술함으로써 1930년대 후반의 현실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손종업의 논의는 그간 이루어졌던 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논의라고 할 수 있다.⁶⁾

그러나 그간 이루어진 연구들은 작품에 드러난 서구문화의 양상을 식민지 자본주의의 메타모포시스적인 공간에서의 서구문화 수용으로 보고 꼼꼼하게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간 이루어졌던 다양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식민지 시기 대중소설 중 폭발적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김말봉의 『찔레꽃』을 분석하여 자생적인 근대가 아닌 왜곡된 근대적 공간, 완숙한 식민지 자본주의의 메타모포시스적인 공간인 경성에서 당대의 서구문화가 작품 안에 어떻게 수용되었고, 대중의 정서에 작동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대중소설 작품 안에서 식민지 근대문화의 메타모포시스적 경험을 찾아가는 것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롭게 받아들여진 서구문화가 대중을 삶이나 가치관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는 새로운 차이와 경험을 통해 변화하고 대중에게 영향을 끼치고, 대중소설은 그러한 경험이 일반 대중의 정서와 보편적인 사고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2. 공간의 변화와 근대적 욕망의 투영

새로운 상업문학을 확립했다고 평가받았던 『찔레꽃』의 인기는 다양한 방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인문평론의 광고에서는 『사건의 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여러 성격의 인물이 등장하고 작가의 숨씨가 쾌도난마를 치는 느낌이며 문학적 정의감을 고양하고 있음을 인기의 이유로 들고 있

6) 오태영, 『가정소설의 정치학』, 『나혜석연구』2, 2013., 박선희, 위의 논문, 손종업, 위의 논문.

다.7) 양평은 『베스트셀러 이야기』에서 서울의 인텔리로서 거부의 호화저택을 무대로 선남선녀들이 벌이는 애정행각의 이야기인 것이 이색적이고, 독립운동이나 민족의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보인 작품이 아님에도 실향민들마저 빠져들게 한 흥미로운 작품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8)

일반적으로 대중소설은 저급한 감성을 보여주고 상업성을 추구하는 문학이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식민지 시기 대중의 문자 해독률이 매우 낮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당시에 대중소설을 즐기던 독자들을 오늘날 우리가 평가하는 저학력이고, 인식수준이 낮은 계층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9) 오히려 『찔레꽃』의 인기는 그 이전의 작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변화한 경성의 새로운 문물과 새로운 상황의 전시에 대한 대중의 흥미와 기대를 충족시켜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찔레꽃』에 등장하는 그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근대의 전시는 당시 대중문학을 수용했던 식민지 대중의 서구에 대한 동경이나 원망, 바람,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영문학을 전공했던 동경유학생으로 통속작가를 천명했던 김말봉이 식민지 경성의 다양한 근대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일제에 의한 근대적 도시 개발 및 백화점이나 카페 같은 새로운 공간의 등장은 자본주의적 욕망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대중으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열망하게 한다. 『찔레꽃』의 서두에 나오는 조만호와 경애, 정순의 백화점 쇼핑장면에 그러한 모습이 잘 드러난다.

세 사람을 태운 자동차가 정거한 곳은 경애가 아버지에게 아무렇게나 꾸며 대답한 XX백화점 앞이었다.(……) 그들은 우선 이층으로 올라갔다. 채색 안개처럼 나누기는 여름 옷감들이 선전용 인형의 몸에 걸쳐진 채

7) 『찔레꽃 광고』, 『인문평론』1940.2.3. 232면.

8) 양평, 앞의 책, 172면.

9) 김미영, 『김말봉의 《밀림》과 《찔레꽃》 독자수용과정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고찰』, 『어문학』107, 한국어문학회, 2010. 228면

손님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한편 벌써 금년 가을의 유행이 되리라는 의
 젓한 색깔의 옷감들이 진열장 유리문 속에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사고 있
 다.

경애는 아버지를 줄라 양복도 고르고 구두도 택하고 그리고 값비싼 화
 장품도 샀다.(……) 정순은 태연히 거절을 하였다. 그러나 정순은 조금
 전에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잡으면 스크르 구름같이 손에 감길 저 고운
 옷감들에 얼마나 강렬한 유혹을 느끼고 있는고 그의 가슴 한복판에 버
 티고 있는 자존심만 아니면 그는 열 번 절을 하고 진열장 앞으로 달려갈
 것이다.¹⁰⁾

식탁에서 일어난 그들은 화초와 화분이 진열되어 있는 맨 위층으로 올
 라갔다. 정순은 경애와 나란히 마지막 층계를 밟고 올라서는 순간 시원
 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밀물처럼 그의 몸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었다. 함
 초롱 물방울에 젖은 꽃, 꽃, 꽃 위에는 가없는 창공이 있고 아래는 화초
 의 무르녹은 향기. 모든 소음과 티끌이 소용돌이치는 대경성 안에 오직
 이곳만이 오아시스인 듯하다. 눈 아래 펼쳐진 서울의 밤은 불과 불, 빛과
 빛이 어울려 찬란한 색채의 바다를 이루고 있다.(53면)

1930년대 식민지 경성에서 백화점은 자본주의적 삶의 양상 및 화려함
 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절레꽃』에서도 백화점은 화려한 자본과 공간의
 전시를 통해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계층을 구분하는 선망의 공간이자 계
 층적 현실인식의 공간이기도 하다. 부유한 두취의 딸로 경제적인 어려움
 을 전혀 겪지 않고 그림공부를 하고 돌아온 동경유학생이자 한량에 가까
 운 경애의 행태와 정순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그러한 면모를 잘 보여주
 고 있다.

1920년대 후반 근대적인 소비문화가 유입되었고 경성의 남촌을 중심으

10) 작중에서 분석의 텍스트로 삼은 것은 김말봉, 『절레꽃』, 진선영 엮음, 『김말봉 전집』3, 소명
 출판, 2014. 47-49면. 이하 본문 인용 시 인용문 옆에 면수만 표기한다.

로 백화점과 고급상점들, 카페나 빠 등의 유흥업소가 등장한다. 1930년대 초반에는 남촌의 본정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일본의 오복점¹¹⁾들이 매장건물을 증축하면서 백화점으로 전환했다. 그중 식민지 조선 최초의 백화점은 현재 신세계백화점의 전신인 미쓰코시백화점으로, 일본제일의 미쓰코시三越백화점의 경성지점이었다. 미쓰코시는 조선인과 일본인을 막론하고 최고부유층을 대상으로 최고급 물건을 판매했다. 그 외 일본인고객을 주로 상대하던 미나카이三中正백화점이 있었고 그 외 조지야丁字屋백화점, 히라다平田백화점, 화신백화점이 있었다. ¹²⁾

당시 백화점의 옥상정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장소가 되었다. 1937년 동아백화점과 치열한 상관다툼 끝에 동양제일의 호화관 신관을 개점한 화신백화점은 각종 편의시설과 오락시설을 설치했고 특히 옥상정원에는 최초의 대형전광판을 설치해 화려함을 더했다.¹³⁾ 화신백화점 주인 박홍식은 바로 옆의 동아 백화점과 상관다툼을 하면서 문화주택 한 채를 경품으로 걸었고 그 결과 동아백화점은 문을 닫게 된다. 이후 박홍식은 미쓰코시 버금가게 화려한 신관을 만들었고 백화점으로 고객을 유인하던 ‘에레베이터’(엘리베이터)를 설치해 화신백화점은 장안의 명물이 되었다. 또한, 사교실을 설치하고, 편물강습회, 미술개인전등을 열면서 자본주의적 문화공간을 만들었다.

당대의 백화점이라는 공간 안에서 돈에 구애받지 않고 양복, 구두, 값

11) 오복점(五服店)은 우리말로는 포복점을 의미하나 메이지 시대 설립된 가운데 통로를 중심으로 각각의 점포가 늘어난 독특한 형태의 권공장 방식이라는 점포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문방구, 포목, 장식품등 다양한 수입잡화들을 진열 판매했다. 1920년대 일본에서 백화점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기 이전까지 초기백화점의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하쓰다 토오루, 『백화점 - 도시문화의 근대』, 이태문 역, 논형, 22면) 미쓰코시 백화점도 1906년 수입잡화상점인 미쓰코시 오복점으로 출발하였고, 1929년 미쓰코시백화점 경성지점을 개설하였다. 『절레꽃』에는 민수가 아버지 이도사와 함께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XX오복점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 오복점이라고 한 것은 시기적으로 볼 때, 과거에 미쓰코시오복점을 비롯, 미나카이 오복점, 조지야 오복점으로 불렸던 백화점을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12) 최병택 · 예지숙, 『경성리포트』, 시공사, 2009. 88-89면.

13) 최병택 · 예지숙, 위의 책, 115면.

비싼 화장품까지 척척 사들이는 경애와 달리 월급 50원을 받아 아버지의 병원비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정순은 자존심만 아니면 옷감에 대한 유혹을 받아들이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느낀다. 전시된 공간과 물건에 대한 화려하고도 강렬한 유혹은 옥상정원에 올라가 ‘모든 소음과 티끌이 소용돌이치는 대경성 안에 오직 이곳만이 오아시스인 듯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그 욕망은 단순히 물질 욕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백화점이라는 근대공간이 제공하는 자본주의적 소비 욕망과 함께 서구문화를 받아들이고자 열망하는 인텔리를 소망하는 독자의 바람과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0년대 대중잡지인 『삼천리』에서 공개한 당시 백화점의 하루 고객 수는 미쓰코시백화점 12만 6천명, 화신백화점 11만 7천명, 조시아백화점이 9만5천명이었다.¹⁴⁾ 식민지 경성의 인구로 볼 때 하루 30만명의 백화점 방문고객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백화점이 근대적 소비욕망을 보여주는 공간이라면 문화주택 역시 근대적 주거에 대한 대중의 욕망을 잘 보여주는 상징물이다. 화신백화점 박흥식이 경품으로 걸었던 문화주택은 『짚레꽃』에도 등장한다. 경애와 결혼을 원하는 윤영환은 경애의 아버지 조만호의 충고로 금화장에다 이만원이나 들여 최신식의 문화주택을 짓는다. 문화주택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15년 조선총부가 조선통치 5주년을 기념하여 신시정의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 조선 물산 공진회를 개최하면서였다. 이때 매일신보사와 경성일보사는 가정박람회라는 전시회를 개최했다. 일제는 조선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구식이며 비문명적인 것으로 치부했는데, 이 박람회에서 이상적인 가옥으로 문화주택을 제시했다.¹⁵⁾ 당시 매일신보 기사에 따르면 문화주택은 1. 두 칸 반 넓이의 부엌과 주부실, 양로실, 시비실(하녀들의 숙소)이 모두 갖추어진 집, 2. 유리창을 통해 햇빛이 들어오는 집, 3. 가정병

14) 『삼천리』, 1933. 02. 102면.

15) 최병택 · 예지숙, 앞의 책, 70면.

실을 갖춘 집, 4. 정원이 있어 어린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집, 5. 깨끗한 화장실과 욕실을 갖춘 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¹⁶⁾

문화주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졌고 1930년대가 되면 문화주택만을 전문적으로 분양하는 집장사도 성행하기 시작했다. 집장사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사람은 나스다 히사요시라는 일본인으로 금화산 아래 이상향을 건설할 요량으로 문화주택촌을 만들어 분양했고, 금화산 아래 마을은 금화장이라 이름을 붙였다. 당시 식민지 경성에는 세 지역의 문화주택촌이 있었는데 『짚레꽃』에서 윤희환은 경애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연희장이 포함된 서부지역의 금화장에 문화주택단지를 산 것이었다. 그러나 문화주택촌에는 대개 일본인 부호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조선 사람들이 집을 지어 살기에는 어려운 곳이었다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 속에서 윤희환은 거금을 들여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조선인으로서의 찾기 어려운 인물로 그려진다. 대중이 『짚레꽃』을 보면서 환호하고 열광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저간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식민지 시기 조선 사람들의 주거형태가 초가집에 토막촌이 늘비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짚레꽃』에 등장하는 문화주택은 ‘으리으리한 솟을 대문과 다채로운 꽃들이 심어진 화려한 정원, 집안의 치장이나 구조는 더할 나위 없이 화려하고 신식이다. 오태영은 『짚레꽃』에 등장하는 조만호의 저택이 부르주아문화의 개인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조만호의 가정은 소비와 여가, 향락을 통한 가족의 일상이 진행되는 소비문화를 중심으로 한 부르주아 가정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¹⁸⁾ 작중에서 문화주택으로 표상되는 공간은 독자에게 새로운 삶을 욕망하게 하는 근대적 공간이며, 구시대적인 가족, 혈연공동체가 아니라 서구적인 근대적인 가족 단위 삶으로의 전환을 꿈꾸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

16) 『매일신보』, 1915. 08. 31.

17) 최병택 · 예지숙, 앞의 책, 68-72면.

18) 오태영, 앞의 논문, 234면.

다고 볼 수 있다.

3. 서구적 생활의 파노라마와 근대적 취미의 향유

1930년대 식민지 경성은 근대적 욕망과 소비의 사회로 진입했고, 도시 안에서 대중은 다양한 형태의 근대적인 생활을 경험하고 그러한 삶을 욕망했다. 물론 그러한 욕망이 식민지하에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대중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나, 제국주의의 수탈과 억압은 대중의 욕망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다. 즉, 표면적으로는 화려하고 근대적이며 새로운 경험을 향유할 수 있는 근대공간으로 보이지만 실제 그 안에서의 일상은 지리멸렬하고 초라하며,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하는 시기였기 때문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대중은 무겁고 어두운 이야기보다 흥미로운 위안을 얻고자 했다. 이 시기 대중소설이 대중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근대적인 삶의 욕망을 작품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짚레꽃』이 간도의 실향민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얻었던 것은 고향을 버리고 척박한 환경에 놓인 그들의 비루한 일상이 근대적인 연애를 하는 인물들을 통해 근대를 대리체험하고 위안 받을 수 있는 보상 기제를 제공했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짚레꽃』은 당시 대중이 욕망하는 다양한 상황을 작품 안에 지니고 있다. 부유하고 근대적인 삶을 누리는 인물, 일반적인 대중은 경험하기 어려운 새로운 삶의 양상과 문화적 체험 등이 그것이다. 작중에서 부르주아의 아들딸인 경구와 경애가 경제적인 여유를 배경으로 이국체험과 근대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경구는 경애보다 일 년을 먼저 난 이집 맏아들이다. 작년 봄 경도제대

를 마친 후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다(166면)

오빠는 세계 일주까지 시키시면서 (……) 전 단지 이태리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네? 반년동안만 있다 오겠어요. 좋은 그림 구경 좀 하고 올테니까요. 네?(171면)

“근데 코스를 인도양을 거쳐서 가는 것이 좋다고 하시지만 암만해도 태평양과 대서양을 횡단해서 런던 파리 백림을 거쳐 이태리로 들어오는 게 더 나을 줄로 생각하는데요.”(186면)

조그마한 케이스에서 꺼내는 것은 북경에서 샀다는 비취반지다. 조금 크지만 어머니는 무척 만족하신 모양이다. 그담에 아버지께는 호박으로 만든 커피스버튼, 경애에게는 향수다. 경자에게는 까만 오동팔뚝시계, 경옥에게는 세계 각국의 풍속그림엽서로 꾸민 앨범, 영남 영길에게는 딱총…… (206면)

조만호의 아들 경구는 경도제대를 마친 인텔리 청년이다. 이 시기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난에 시달리며 구직활동을 하러다닐 때, 부르주아의 아들인 경구는 학교를 졸업하고 경제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인물이다. 거기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식구들에게 꼭 맞는 선물을 마련할 수 있는 감각도 가진 청년이다. 경구의 동생 경애 역시 일본에서 미술공부를 한 인텔리이다.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세련된 감각을 지니고 있으며 좋은 그림을 보기위해 반년 동안 이태리 여행을 조를 수 있는, 걱정이라고는 실연의 상처만 있는 인물이다. 여기에 경애와 결혼을 원하는 윤영환 역시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아 오로지 경애와 결혼하기 위해 문화주택을 짓고, 취미활동을 하며, 해외여행계획을 세우고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약값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갖은 수모와 고통을 견뎌

야하는 정순이나 몰락한 집안형편으로 공부를 그만두거나 직업을 찾아 전전해야하는 민수,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공금형령을 꿈꾸는 최근호와는 전적으로 다른 상황에 놓여있다. 후자의 인물유형이 당시 대중과 밀접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인 예측상황에 놓인 인물들이라면 부르주아의 자식 들인 경구, 경애, 영환은 어떤 경제적인 구애도 받지 않고 오로지 근대적인 소비에 몰두 할 수 있는 계층의 인물이다.

조만호씨는 손수 메뉴를 집어 딸의 앞으로 내밀었다.

“전 멜론으로 하겠어요.”

“멜론이라 안 선생은?”

조 씨의 목소리는 점잖게 그러나 지극히 부드럽고 친절하게 울려 나왔다.

“…… 저도 멜론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됐군. 멜론 삼 인분.”

하고 조 씨는 옆에서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서 있는 여급을 돌아보았다.

(중략)

멜론 다음에 아이스크림과 소다수가 들어왔다. 이번에도 경애의 주문이다. 경애는 소다수에 아이스크림을 넣어 휘휘 저어서 먹는다……정순이 한 모금을 빨아들인 소다 물은 목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콧구멍으로 조금 올라왔다. 그 때문에 정순의 눈가에는 금시로 눈물이 핑그르르 돌면서 재채기가 나오려 한다.(52-53면)

정순이 조만호의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간 후 정순에게 호감을 가진 경애는 아버지와 함께 정순을 데리고 백화점에 간다. 그곳에서 정순은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식민지 시기 일반인들은 맛보기 힘들었던 멜론과 아이스크림을 맛보는 장면의 묘사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정순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먹거리묘사 장면은 그들의 계층적인 속성과 더불어 계층에

따라 다른 문화적인 체험의 양상을 보여준다. 그들이 저녁으로 주문한 것은 멜론이다. 경애는 거침없이 멜론을 주문하지만 정순이 “……저도 멜론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장면은 새로운 선택이 익숙하지 않은 정순의 상황을 보여준다. 또한 소다수에 아이스크림을 주문해 거침없이 넣어 먹는 경애와 빨이들인 소다물이 컷구멍으로 올라와 눈물이 핑그르르 도는 정순의 모습에 대한 대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서구적인 체험의 양상이 아주 다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¹⁹⁾

이러한 서구적이고 이국적인 생활양식에 대한 모습은 식생활이나 파티 장면, 의상, 화장 등 다양한 데에서 드러난다.

그는 혀를 차면서 생우유와 반숙의 달걀로 차린 아침상을 받았다.(81면)

“호배추를 곁들인 고로케가 여간 맛나지 않아요.”(95면)

밤은 얼마나 깊었던지 근호의 앞에 놓인 백마위스키가 절반 넘어 줄어들었다.(119면)

하얀 에이프런을 두른 정순이가 레몬차에 얼음을 띄운 찻잔을 수북이 한 쟁반 들고 온다. ……얼음차와 가벼운 과자를 먹으면서 웃고 이야기하는 것 그들은 참으로 행복스러웠다.(211면)

경애가 일어서서 손수 돌아가며 포도주를 따르자 윤희도 병을 쥐고 옆에 앉은 사람을 위해 술을 부었다.(234면)

19) 특히 경애가 소다수를 주문해 아이스크림을 넣어 먹는 장면은 매우 흥미롭다. 미국에는 우리에게는 생소한 닥터 페퍼 바닐라 플랫, 루트비어 바닐라 플랫 같은 소다 류에 아이스크림을 넣어 먹는 후식이 있다. 당시 경성에서는 소다 류의 음료는 먹는 사람도 드물었거니와 현지에서만 독특하게 후식으로 먹는 방법을 작품 안에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이국체험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수는 빵을 딱 떼어 버터를 바르며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313면)

『짚레꽃』에는 일반적인 대중이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서양 음식이 등장한다. 작중에 자주 등장하는 서구적 아침메뉴인 우유와 달걀을 비롯해 멜론, 소다수, 호배추(양배추)를 곁들인 고로케, 레몬차, 위스키 맥주, 포도주, 빵, 버터, 과자 초콜릿 등이 그것이다. 식생활에 있어 빈부의 차이가 크고 쌀보다는 조나 수수를 많이 먹었던 당시의 끼니상태를 보면 작중에 등장하는 다양한 식재료와 음식은 당시의 일반적인 식생활 형태가 아님을 알 수 있다.²⁰⁾ 더욱이 당시 동물성 단백질을 전혀 섭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30%나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유와 달걀을 아침에 상식하는 작중의 이야기는 일반인들의 현실과는 매우 유리된 것임을 드러낸다.²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기 인텔리로 지칭되던 작가들의 작품에서는 이러한 서구적 취향을 드러내는 장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김말봉의 경우 일본에서 유학했고 영문학을 전공한 까닭에 식민도시 경성과 서구적인 체험이 결합되어 “이질적인 층위의 모더니티를 형성”²²⁾ 했고, 그러한 체험이 작중에서 다양한 이국체험을 보여주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시기 대중소설에는 파티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 『짚레꽃』의 작중 파티장면 역시 매우 이국적인 정서를 보여준다.

경에는 정순을 독촉하여 글라디올러스, 달리아, 치자꽃으로 식당을 꾸미고 있는 것이다. 이날 저녁 주빈인 이민수와 경구의 교의에는 돌아가며 치자꽃으로 꾸며놓고 식탁에는 조만호씨 침실에서 내어온 고려자기로

20) 구자옥 · 김미희 · 노경희, 『일제강점기의 조선 8도 식생활(끼니) 실태』, 『농업사연구』 8권 1호, 2009. 152-154면.

21) 이송순, 『일제강점기 조선인 식생활의 지역성과 식민지성』, 『한국사학보』 75, 고려사학회, 2019. 203면

22) 손종업, 앞의 논문, 306면.

된 화병에다 해바라기를 서너 송이 꽂았다. 태양을 심볼화 한 것처럼 동그란 큰 송이들은 환하게 식탁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저녁놀에 폭적시어 낸 듯 하르르 떨고 있는 이브닝드레스를 우선 한 쪽 팔에 쓱 걸쳐 보는 경애는 민수씨 하고 맘속으로 부르짖고 흘러나오는 미소를 삼키는 것이다. 경애는 옷을 안고 자기 침실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몸치장을 시작하였다. 이브닝드레스를 입으면 으레 노출하는 가슴, 등, 두 팔에 별수 없이 화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정순은 경애의 시키는 대로 경애의 등허리에다 콜드크림을 발라 마사지를 하고 그리고 가제로 그것을 닦아낸 뒤 다음에 폼피아 마사지크림으로 또 한 번 등과 어깨를 마찰하고 그리고 가제로 닦아낸 뒤…… 더운 물수건과 찬물수건이 몇 번이나 경애의 팔과 등허리를 싸고…… 화장수 베니싱크림, 물분, 가루분, 연지, …… 화장이 끝나자 정순은 꿇어앉아 경애의 양말을 신는 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최후로 경애가 신는 에나멜 구두를 수건으로 닦아 경애의 발에 신기고…… (229-231면)

민수와 그의 아버지 이도사가 함께 경매 연기를 부탁하러 조만호의 집을 찾은 순간부터 사랑의 상처로 독신을 고집했던 경애는 민수에게 호기심을 보였다. 그 후 영환과 승마도중 날뛰는 말로 인해 벌어진 사고로 민수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구한 후에는 정순과 민수를 사촌으로 오해하고 적극적으로 민수에게 관심을 보인다. 경애는 민수의 고마움에 대한 보답으로 파티를 여는데 작중의 파티장면은 여러 면에서 흥미롭다. 파티를 위한 치장과 메인 게스트를 위한 의식, 파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의상과 화장 등이 그러하다.

경애가 파티를 위해 가장 먼저 한 것은 식음료를 사들이고 장식을 하는 것이었다. 경애가 식당을 꾸미는 장식으로 선택한 꽃은 글라디올러스, 달리아, 치자 꽃, 해바라기 등이다. 이름도 생소한 글라디올러스, 달리아는 이름만으로도 이국정서를 물씬 풍기고, 의자를 장식하는 치자꽃이나

식탁을 돋보이게 하는 해바라기를 쬐는 풍경은 일반 가정의 밥상머리에 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이다. 의상 역시 마찬가지이다. 수수한 모시치마를 입은 정순과 달리 화려한 이브닝드레스를 입기위해 치장을 하는 경애의 모습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당시 헐리우드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가슴이 파인 이브닝드레스와 그것을 입기 위해 공을 들고 화장수, 물분, 가루분 연지까지를 바르는데 이르는 화장의 과정은 그것만으로도 독자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장면 외에도 『절레꽃』에는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할 근대적이고 서구적인 부르주아 취미가 등장하는데 승마, 핑퐁, 보트 타기 등이 그것이다.

동창으로 공부하는 Y라는 여자와 함께 그는 나카노에서 셋집을 얻어 가지고 자취생활을 시작하고 몇 날이 지난 어느 일요일 아침 뚜벅 뚜벅, 뚜벅, 뚜벅 말 발굽소리가 잘 개인 가을하늘 아래 가볍게 들려왔다(……) Y라는 청년이 어떻게 웅변으로 승마란 것이 유쾌하고 좋은 운동인 것을 설명하였던지 무서워하면서도 경애의 호기심은 마침내 Y가 타고 온 말갈기를 만져보고 배를 건드려보기까지 하였다.

그로부터 한 시간 뒤 경애는 Y의 남매와 마찬가지로 XX승마구락부로 가서 Y의 지도를 받아가며 말을 타기 시작하였다. 동경 교외에 갈대꽃 날리고 잎 떨어진 가지 위에 익은 감 타는 듯 붉게 물들 때 경애는 제법 익숙한 기수처럼 혼자 말위를 오르내리게 되었다.(93면)

지난봄 영환에게 일주일동안 승마술을 가르쳐주던 K씨는 오늘도 반갑게 돈 많은 영환을 맞이하는 것이다.

“네 침 얼마동안은 펍 고달픕니다. 그래도 여러 날 지나면 차츰 피로도 풀리고…… 왜 탈만하죠.” 하던 경애의 말이 생각난 까닭이다. 영환은 일각을 지체하지 않고 경애에게 승마를 하지 않겠느냐고 전화를 걸어본 것이다.(98면)

흰 배를 깔아 논 듯 한강물 구비가 가까이 올수록 물은 하늘빛으로 푸르고 물위에는 사람들의 머리가 호두알같이 떠 있다. 보트 위에는 나체 혹은 반나체의 남녀들이 서투른 노질을 하면서 웃고 이야기하는 꼴들이 경애의 눈에는 구역질을 일으킬 듯이 거슬려보였다.(194면)

1930년대 대중소설에는 베이비 골프, 테니스, 댄스, 노젓기(조정) 등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가 등장한다. 이시기 다양한 서구의 스포츠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스포츠가 여가를 보내는 근대적인 취미이자 교양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30년대 후반 김남천은 『당대조선여성기질』이란 글에서 여학생들의 앙케이트를 바탕으로 당대 조선여성의 성품과 기질을 평하고 있다.²³⁾ 앙케이트조사 항목 중 남편의 취미를 묻는 질문에 당시 여학생들은 1위 문학, 2위 스포츠, 3위 음악을 답으로 내었다. 이 답이 흥미로운 것은 결혼상대를 구할 때 고려할 요소로 문학이나 음악 같은 전통적인 예술교양과 함께 스포츠라는 새로운 취미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찔레꽃』에서는 인텔리계층에 유행했던 스포츠 중에 승마가 작품의 전개에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당시 대부분의 스포츠가 그랬듯이 승마 역시 일본을 통해 들어왔고, 1930년대 승마구락부가 생기면서 발전했다. 1930년 제 1회 전조선 승마대회가 열렸고, 1934년에는 서울 승마 구락부가 설립되었다.²⁴⁾ 경애가 승마에 심취하게 된 것은 동경 유학시절 친구 Y 남매로부터 승마를 배웠고, 승마에 취미를 붙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Y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부남이었던 Y에게 상처를 입은 경애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독신을 택한다. 그러나 나중에 경애의 독신 결심을 무너뜨린 것은 낙마사고를 당했을 때 민수가 말을 타고 그녀

23) 김남천, 『당대조선여성기질』, 『사해공론』제 4권 8호, 1938. 8. 59면.

24) 한국마사회, 『승마: 이론과 실제』, 한국마사회, 1985. 146면

를 구출해냈기 때문이다. 작중에서 승마를 계기로 한 결혼에 대한 경애의 심경변화는 사건을 전개시키는 방법이며, 동시에 근대적 취미로써 스포츠에 대한 긍정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찢레꽃』에는 근대적 취미였던 영화에 대한 당시 대중의 생각을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한다.

경애가 이끄는 대로 민수는 ‘라모나’라는 사진을 보러 약초극장으로 갔다. 그는 경애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사진을 구경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커피를 마시고…… 민수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거절하지 못하였다. (318-319면)

식민지 시기 한국사회에서 영화는 이전의 신파극을 밀어내고 강력한 대중의 오락이 되었다. 외국의 수입영화부터 식민지 조선에서 자체 제작한 김도산의 〈의리적 구토〉를 시작으로 나운규의 〈아리랑〉, 1930년대 토키영화 〈춘향전〉까지 대중에게 영화는 새로운 충격이자 중요한 문화적 향유물이 되었다. 대중소설은 당대의 정서를 매우 민감하게 반영하는데 『찢레꽃』에도 당시 유행하던 영화에 대한 내용이 등장한다. 1936년 일제가 할리우드 영화의 수입과 배급을 제한하면서 할리우드 영화의 점유율이 떨어졌는데도 작품 안에는 거의 실시간으로 당시 상영한 작품이 등장한다. 작중에서 경애와 민수가 보러간 영화 〈라모나〉가 그것이다.

식민지 시기 경성은 북촌과 남촌으로 나뉘어 근대도시화의 과정을 경험했고 영화관 역시 일본인과 조선인 극장으로 분리되어 되었다가 1930년대 들어 고급 상설영화관이 생기며 영화역시 계층에 따라 관람의 방식을 달리하게 된다. 특히 1936년 남촌에 대형 고급영화관이 신설되는 데 『찢레꽃』에 등장하는 약초극장은 고급 상설영화관 중 하나였다.²⁵⁾ 이시기

25) 송효정, 『영화관의 형성과 관람의 근대』, 『비교한국학』26권 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8. 609면

남촌의 고급 극장은 고급취향을 향유하는 계층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며, 작중에서 민수와 경애가 약초극장으로 영화를 보러 간다는 사실은 부르주아의 고급 취향을 여실히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테크니컬러 기법을 사용한 영화〈라모나(1936)〉의 포스터〉

두 사람이 약초극장에서 본 영화 〈라모나〉는 1936년 20세기 폭스사에서 제작한 헬렌헨트 잭슨의 원작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은 당시 대부분의 영화가 흑백영화였던 상황 속에서 테크니컬러 기법이라는 획기적인 컬러기법을 사용한 영화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그들은 관람료 30~50전의 영화를 볼 수 있는 계층으로 서구문화를 매우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가진 인물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러한 관람 활동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음을 보여준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의 제작연도가 1936년인데 『짚레꽃』의 연재가 시작된 1937년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상영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서구문화의 전파가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영화에 대한 대중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식민지 경성이 그 이전과는 다른 근대적인 전환 공간으로서 얼마나 빠르게 근대적인 문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변화해 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매우 흥미롭다.

4. 자본주의적 삶의 일상화

1910년대 『장한몽』의 등장 이후 ‘돈이나, 사랑이나’라는 질문법은 1910년대를 거쳐 대중적이고 통속적인 서사물의 주요 원리가 되었다. 특히 대중소설 속에서 돈과 사랑의 문제는 대중을 끌어들이는 흥미로운 소재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로 표상되는 돈에 대한 욕망과 의리와 사랑사이의 삼각관계는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시기 인간군상의 원초적인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대중적인 서사물의 거의 대부분은 그러한 풍경을 디테일하게 그려내면서도 돈보다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지닌 인물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사랑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절레꽃』에서 형상화하는 ‘돈과 사랑’의 인식에 관한 문제는 『장한몽』 이후의 통속적인 대중 서사물과는 다른 지점에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작중에서 사랑하는 정순과 민수 사이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이다. 가족의 생계와 아버지의 약값, 동생들 학비까지 그녀는 식민지의 젊은 여성이 감당하기에는 참 힘들고 버거운 상황에 놓여 있다. 생활의 굴레는 사랑하는 민수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숨겨야하는 상황을 가져온다. 그녀가 사랑하는 이민수 역시 별반 상황이 다르지 않다. 그의 부모는 자식교육과 과도한 체례 등 구시대적 관습과 허위의식으로 전답을 저당 잡혀 전 재산이 다 넘어갈 지경에 이르자 소작이라도 받을 것을 걱정하는 상황에 있다. 아버지와 함께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하

지만 현실은 냉정해 학업을 중단할 지경에 이른다. 민수는 학업을 그만두려하지만 아버지의 간곡한 만류로 학생들에게 개인교습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간다.

작중에서 민수와 정순의 관계는 중첩되는 오해 속에서 장한몽에서 보여준 돈의 논리와는 다른 차원과 상황으로 변화한다. 1910년대 조중환의 『장한몽』은 강력한 자본주의적인 논리에 의거해 인물들의 행위를 변화시켰다. 그러나 그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자각을 한 후에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그것을 극복한 이후 행복이라는 결말로 나아간다. 그러나 『절레꽃』에서는 1930년대 이르러 완숙해진 자본주의적 논리가 보편화된 상황 속에서 연애보다는 생활이, 사랑보다는 돈이 관계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내가 지금 이집을 뛰어나가면……그들은 무엇을 먹노. 그렇다. 새로운 직업이 생길 때까지 조금만 더 참자(……)

“생활은 전쟁이다. 그리고 직업은 전쟁의 제일선이다. 더욱이 여자에게 있어서.”

중얼거리며 머물러로 목을 감고 복도로 나온 정순은

‘살아야 되겠다.’는 의식이 탄환처럼 가슴한복판을 꿰뚫고 지나가는 것을 감각하였다.

‘연애라는 것은 인생에게 값 높은 예술이다. 그러나 …… 전쟁에 나선 이상 생명은 예술보다 귀하다.’(444면)

“정조란 것도 결국 밥 있고 옷 있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사치품이야”(106면)

‘월급쟁이 최근호’를 버리는 것이 기생으로서 정당한 권리요 또는 보다 더 큰 복을 붙들기 위하여 적은 그것을 버리는 것이 지혜 있는 여인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115면)

하나는 가난한 월급쟁이 하나는 XX은행 두취 어느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냐. 옥란은 물론 근호의 사랑이 조만호보다 얼마나 열렬한 것을 잘 알았다. 그러나 사랑의 열도는 더 나을지 몰라도 조만호에게는 백만장자로서의 부와 지위가 최근호 청년의 풋 열정을 배상하고도 몇 백배나 남는 것을 생각할 때 옥란은 독한 벌레와 같이 근호의 티없는 사랑의 줄을 쏘아버리고 말았던 것이다.(449면)

“후 연애도 돈이 있어야하거든. 자유연애 미친 소리 하지 말어. 돈이야 돈 황금이야! 황금 하하하하.”(323면)

정순은 민수가 정순과 경구의 사이를 오해하고, 복수심으로 경애와 약혼을 한 것을 알게 된다. 정순은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고 일터인 조만호의 집을 나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정순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과 연애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은 전쟁이고, 직업은 전쟁의 제일선’이라는 의식을 지니고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다. ‘돈이나 사랑이나가 자본주의적 근대로의 전환을 잘 보여주는 화두라면 『찹레꽃』에 등장하는 직업, 전쟁으로 표현되는 생활은 단순한 생계 문제의 일 단면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삶의 양상이 일상으로 등장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정순의 이러한 인식은 사회 변화 및 교육에 따라 여성 삶의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백화점이라는 근대적 공간의 탄생은 많은 사회문화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중에서도 백화점 ‘쇼프걸’의 등장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회적 현상을 보여준다. ‘쇼프걸’은 백화점에서 응대서비스를 하는 직업여성으로, 쇼프걸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학교 이상의 학력과 미모를 갖추어야 했다. 1930년 당시 조선인 여성 취학률이 5.7%였고 1931년 여자고등보통학교가 16개에 불과했으며, 총 여학생 수가 5천명을 넘지 않은 시절이었으므로 백화점 ‘쇼프걸’의 대부분은 일정한 학식과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집 딸들

이었다. 1933년 조지아 백화점이 몇 명의 ‘쇼프걸’ 모집광고를 냈는데 600 명이 넘는 여성이 지원을 했고, 그중에는 전문학교 졸업자 심지어 외국유학생도 있었다. 1934년 백화점 ‘쇼프걸’은 200명 정도였고 1937년 화신백화점 신관이 개관할 때 화신백화점에만 200명의 ‘쇼프걸’들이 있었다. ‘쇼프걸’로 표현되는 여성의 전시는 장안에 화제를 뿌렸고 당시 명문학교 남학생과 샐러리맨들은 배우자감을 찾기 위해 백화점을 드나들었고 실제로 로맨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²⁶⁾

결혼, 가정, 육아를 담당하던 여성들은 신식교육을 받고 직업전선에 뛰어들면서 직업인으로서의 일상이 생겨났고 사회적으로 선망하는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절레꽃』의 정순이 ‘여자에게 직업이 제일선’이라는 생각과 생활이 전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은 1930년대가 이전과는 다른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공간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모는 경애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경애는 실연의 트라우마로 독신을 고집하는데 여자의 행복은 가정에 있다고 결혼을 중용하는 어머니에게 오히려 “결혼을 해서 행복하냐”는 반문을 하기도 하고, 아버지 조만호에게는 결혼을 하지 않고도 훌륭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실행으로 보여주겠다고 공언하는 인물이기도하다. 이렇듯 정순이나 경애를 통해 보여주는 당대 직업이나 결혼에 대한 생각은 이전과는 매우 다른데 그런 인식의 전환이 흥미롭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통속적인 대중소설에 등장하는 사랑과 돈의 삼각관계가 항상 사랑이 승리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면 『절레꽃』에서는 사랑과 돈의 삼각관계에서 돈을 선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선택에 대해 도덕적인 딜레마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생 옥란은 최근호와 사랑에 빠졌지만 그의 월급이 가족의 생계를 잇기에는 턱없음을 느끼고 조만호와 정을 통하는 사이이다. 정조가 밥 있고 옷 있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사치품으로 생각하는 그녀는 ‘월급쟁이 최근호’를 버리는 것이 기생으로서 정당한 권리이고 지혜 있는 여인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

26) 최병택 · 예지숙, 앞의 책, 109-113면.

며 급기야는 백만장자의 부와 지위가 자신과 아들을 위해서는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옥란의 계획은 조만호의 변심으로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복수심으로 조만호와 동침을 했던 침모의 딸을 죽이게 된다. 돈에 대한 욕망은 작중에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고도 도덕적인 딜레마를 전혀 가지지 않은 인물을 등장시킨다. 자신의 딸을 가짜 안정순으로 변장시켜 동침을 하게하고 임신을 유도한 침모 같은 인물이 비도덕한 행위를 하고도 도덕적인 딜레마를 전혀 느끼지 않는 인물이다.

1910년대 『장한몽』의 심순애는 김중배가 낀 번쩍이는 황홀한 광채의 다이아몬드 반지에 마음을 뺏겨 정혼자 이수일을 버리고 황금에 대한 욕망을 선택한다. 그리고 황금의 노예가 되고자 했던 선택으로 고통 받고,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도덕적 딜레마에 빠진 인물이었다. 그러나 기형적이고 왜곡된 자본주의의기는 했으나 자본주의적 삶이 전면화 되는 1930년대에 이르면 돈이나 사랑이냐는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돈에 대한 욕망, 일상적인 삶의 욕망을 표출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근대적 공간으로의 전환과 일상적인 삶의 변화가 가져온 매우 흥미로운 메타모포시스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나가는 글

왜곡된 근대의 역사는 1930년대 식민지 경성의 삶의 변화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 타율에 의한 자본주의화였지만 식민지 경성이라는 공간의 변모는 그 안의 구성원들의 삶과 인식 등 다양한 변화를 견인해 냈다. 본고에서는 근대적 지식과 교양, 근대적 주체가 살았던 식민지 자본주의의 메타모포시스적인 공간 경성이 1930년대의 대표적인 대중소설 『찔레꽃』에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절레꽃』은 그 이전의 작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변화한 경성의 새로운 문물과 새로운 상황의 전시를 통해 대중의 흥미를 이끌어냈다. 특히 작품 속에 형상화된 자본주의적 소비의 완성판인 백화점은 화려한 자본과 공간의 전시를 통해 대중의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아울러 백화점이라는 근대공간이 제공하는 자본주의적 소비욕망과 함께 서구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열망하는 인텔리를 소망하는 독자의 바람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근대적 주거에 대한 대중의 욕망을 잘 보여주는 문화주택이라는 신식 공간을 통해 새로운 삶을 욕망하는 대중의 정서를 보여주었다.

『절레꽃』이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작품 안에 다양한 서구적 삶의 양상을 전시함으로써 현실에서 도피를 꿈꾸는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해외여행의 이국체험, 이국적인 생활방식과 서구적인 식생활, 파티문화, 승마, 핑퐁, 보트타기 같은 부르주아적인 취미, 헐리우드와 거의 동시 상영하고 있는 영화의 관람 등을 통해 다양한 서구적 생활의 파노라마를 보여주고, 대중의 삶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또한 1930년대에 이르면 돈이나 사랑이나는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돈의 욕망 일상적인 삶의 욕망을 표출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근대적 공간으로의 전환과 일상적인 삶의 변화가 가져온 메타모포시스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소설에서 식민지 근대문화의 메타모포시스적 경험을 찾아가는 것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롭게 등장한 문화적 경험이 대중의 삶이나 가치관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다. 본 연구는 식민지 시기 대표적인 대중소설 『절레꽃』을 통해 메타모포시스적인 공간이었던 식민지 경성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근대적 전환공간이었던 경성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서구문화를 받아들였고, 또한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것을 열망하게 했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강옥희, 『한국근대 대중소설연구』, 깊은샘, 1999. 243면.
 양평, 『베스트셀러이야기』, 우석, 1985. 172면.
 진선영 엮음, 『김말봉 전집』3, 소명출판, 2014.
 최병택·예지숙, 『경성리포트』, 시공사, 2009.
 한국마사회, 『승마: 이론과 실제』, 한국마사회, 1985. 146면

2. 논문

강옥희, 「1930년대 후반 대중소설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구자옥·김미희·노경희, 「일제강점기의 조선 8도 식생활(끼니) 실태」, 『농업사연구』 8권1호, 2009. 127-165면.
 권미라, 「김말봉 통속소설 연구 : ‘밀립’, ‘짚레꽃’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미영, 「김말봉의 《밀립》과 《짚레꽃》 독자수용과정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고찰」, 『어문학』107, 한국어문학회, 2010. 219-243면
 김한식, 「김말봉의 『짚레꽃』과 ‘본격통속’의 구조」, 『한국학연구』12,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0. 147-169면.
 박선희, 「『짚레꽃』에 나타난 스포츠와 연애」, 『우리말글』59, 우리말글학회, 2013. 331-361면.
 반건우, 「1930년대 대중 연애소설의 서사구조 연구 : 김말봉의 『짚레꽃』과 박계주의 『순애보』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서영채, 「1930년대 통속소설의 존재방식과 그 의미 : 김말봉의 『짚레꽃』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4권 1호, 민족문학사학회, 1993. 267-288면.
 손종업, 「『짚레꽃』에 나타난 식민지도시 경성의 공간 표상체계」, 『한국근대문학연구』 16, 한국근대문학회, 2007. 301-330면.
 송효정, 「영화관의 형성과 관람의 근대」, 『비교한국학』26권 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8. 587-623면.
 오혜진, 「근대 대중소설에 나타난 장르믹스의 변모양상 - 염상섭의 『사랑과 죄』와 김말봉의 『짚레꽃』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27, 우리문학회, 2009. 209-238면.
 유진아, 「1930년대 후기 장편소설에 나타난 통속성의 양상 : 『짚레꽃』과 『탁류』를 중심으로」,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경춘, 『1930년대 대중소설 연구 : 김말봉의 『짚레꽃』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이송순, 『일제강점기 조선인 식생활의 지역성과 식민지성』, 『한국사학보』 75, 고려사학회, 2019. 189-227면.
- 이정옥, 『대중소설의 시학적 연구 : 1930년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장두식, 김말봉의 『『짚레꽃』 연구』, 『한국문학논집』18,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2. 411-432면.
- 정희진, 『김말봉의 『짚레꽃』 연구 : 서사기법과 독자 흥미유발 요소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Abstract>

Aspect of Western Culture Acceptance Reflected in Popular Novel during the Colonial Period —Into ‘The Wild Rose’ by Kim, Malbong

Kang, Okhee

This research is an analysis of the beloved novel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wild Rose’ by Kim, Malbong(김말봉), on how the western culture was accepted in the city of Kyung Sung(경성), where the city was metamorphic space according to mature colonial capitalism and was going distordedly modern, and how the western culture affected the readers.

The popular novel ‘The wild Rose’ during the 1930's pulled interests from the crowd by displaying the new look of ‘Kyung Sung(경성)’ with new products and occasions that did not exist in the previous popular novels. Especially, the department store shaped in the novel expresses the will of readers that wanted to accept and spend the western culture by displaying fancy capitals and places. Also with unfamiliar places such as Munhwajutaek(modern housing), the novel showed the emotions and feelings that the public had desired.

Another reason why ‘The wild Rose’ was beloved by the public was because the novel displayed various aspects of western lifestyles, and it had pulled the readers attraction of whom wanting to escape from the reality. Traveling abroad regardless of their financial status, exotic lifestyles and western dietary life, parties, horse-back riding, ping-pong,

high-class hobbies such as boat riding, watching movies from Hollywood almost at the same time as local, etc. With such events, the novel showed the panorama of western lifestyles and influenced very much in change of the public's lifestyle. Also, when the time reaches the 1930's, people do not fall in the dilemma of money or love, but rather naturally express their desire in money and lifestyle. This change of perception could be defined phenomenon of metamorphosis brought by changes into modern space and changes in lifestyle of the public.

Key words: The wild Rose, popular novel, Kyungsung, department store, Munhwajutaek(modern housing), western lifestyles, metamorphosis

투 고 일 : 2019년 8월 25일

심 사 일 : 2019년 8월 27일-9월 7일

게재확정일 : 2019년 9월 10일

수정마감일 : 2019년 9월 26일